

'법률투쟁' 성과연봉제 시행 차질

7개 금융공기업 무효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내 결과 안 나오면 총파업 통해 막을 것"

전국금융노동조합 소속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법률투쟁'에 나서면서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데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진두지휘해 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가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은 지난 7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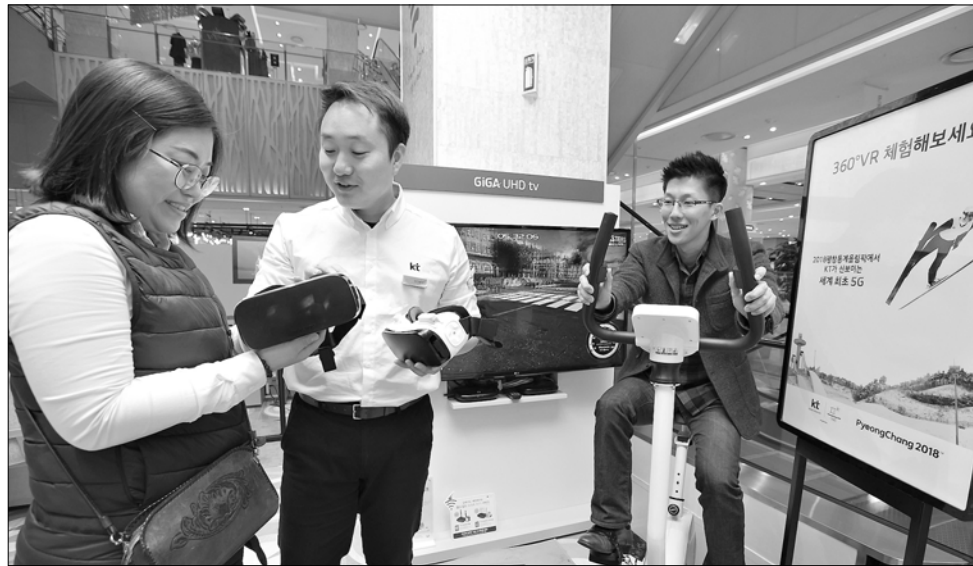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불법적인 이사회 통과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비교적 결론이 빨리 나온다.

금융노조는 내년 1월1일 전까지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도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도입을 저지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성과연봉제인 만큼 연내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과가 해를 넘겨도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체험하는 IoT 매장 9일 오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KT 체험형 상설 매장에서 고객들이 GIGA IoT 기기를 체험하며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KT는 '롯데백화점과 협업해 김포공항점을 시작으로 체험형 상설매장을 선보이며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손쉽게 KT의 GIGA IoT 상품, VR 콘텐트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애초 계획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초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정부는 임 위원장을 콘트를 타워로 내세워 성과연봉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공기업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사태가 터지며 사실상 정부의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임 위원장마저 갑작스레 부총리 내정자로 임명되며 금융당국 내부 분위기도 여수선해졌다.

임 위원장과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두 경제사령탑이 공존하는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며 금융위와 기재부 모두 정상적 업무 진행이 어려워졌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일정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부총리 인수·인계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 예전처럼 성과연봉제에 힘을 쏟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시중 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애초 시중 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뒤 금융공기업의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여론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모습에 기초를 바꿨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

서 시중 은행들이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할 이유는 없다"며 "금융공기업들까지 법률 투쟁에 나섰는데 얼마나 유지될지 모를 성과연봉제를 이사회가 왜 도입하겠느냐"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임 위원장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등 금융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잇돌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 업체·신용따라 50% 증액

한도는 2000만원 유지... 조정·보완 방안 발표

앞으로는 개인신용도나 금융거래 실적 등이 양호한 고객의 경우 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고, 대출금리 유인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조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부터 사잇돌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상환기간은 최장 60개월이다.

금융위는 중신용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대출은 서류 확인→서울보증보험 심사→은행 심사→대출 실행 순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기 때문에 은행과 저축은행은 보증보험이 책정한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은행(전체)과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유하고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 저축은행(현재 KB·신한·페퍼·오케이·BNK)에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증액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고객은 사잇돌대출

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가령 보증보험과 금융사가 협의만 하면 1000만원의 한도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최대 500만원(최대 보증한도 50% 적용 가정)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사잇돌대출의 1인당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대출액을 늘려도 이 한도는 넘길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증액 규모는 대출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우기 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조정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의 대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다음날 삼성사장단회의 '평소 분위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9일 열린 수요 회의에 참석한 삼성그룹 사장단은 이구동성으로 "분위기가 평소와 다를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회의) 분위기가 평소와 같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전 사장과 정철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은 "회의에서 압수수색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사옥이 검찰 압수수색까

지 당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단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는 모양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품메모리사업부 사장은 출근길에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해야지"라고 했다.

박상진 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은 "박 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장단은 박 사장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입을 닫거나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김영기 삼성전자 무선네트워크사업부 사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 최순실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지상파 3사에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유지 명령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

KT스카이라이프가 KBS·MBC·SBS 블랙아웃 위기를 당장 모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사 분쟁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 프로그램 공급 중단이 임박하자 방송법 제13조의2에 따라 KBS와 SBS에 대해 9일 0시부터 12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일 방통위는 MBC에 12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KT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3사 방송 중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방송 유지 명령은 재송신 분쟁이 심화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때 시청자의 안정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을 지속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 조정에 참여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 재송신은 월 이용료를 받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공중에 있는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재공해주는 행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예능 '무한도전'은 MBC가 제작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일정 값을 치르고 프로그램을 구매해 자사 가입자에게 보여주는 식이다. 문제는 적정 단가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입장 갈

등이 심화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 연장 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2011년 이후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한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 중단 사례는 총 7번으로 2100만 가구가 시청권을 침해받았다.

문제가 심해지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